

캐서린 사라 영

Catherine Sarah Young

나는 나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다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학의 객관적 사실들과 이를 통해 학습한 물질의 특성들은 여전히 내 예술의 근간으로 존재한다. 또한 나는 과학이 지닌 시학을 효과적으로 끌어내 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인간의 경험이 지닌 풍성함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인간의 감각을 통한 지각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상호소통 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나는 내가 공부했던 분자생물학, 인지학, 심리학 등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일정한 패턴을 찾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이로움"은 내 작업에서 드러나는 일관된 주제이다.

내 작업의 의도는 지각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호기심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내 작품은 체험적이고 인터랙티브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관람자는 작품 혹은 작업 과정의 일부가 된다.

캐서린 사라 영은 인간의 지각과 그와 관련된 기억, 창조성, 놀이에 대해 탐구하는 작가이자 과학자이며 동시에 디자이너, 탐험가, 저술가이다. 마닐라에서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으로 학위를 취득했으며, 바르셀로나에서는 미술 교육으로,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으로 인터랙션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의 포에트리 브로델과 뉴욕의 바우어리 포에트리 클럽에서 자신의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6년간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의 통신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예술과 과학을 혼합하여 이야기와 오브제, 경험들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경이로움 사이의 연결을 가능케 한다. 다수의 학술대회와 강연, 워크숍, 미술관 등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Catherine Sarah Young is an artist, scientist, designer, explorer, and writer whose work primarily explores human perception and its relationships to memory, creativity, and play. She received her degree in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from Manila, fine art education from Barcelona, and was a Fulbright scholar who obtained her MFA in Interaction Design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She has read her poetry at the Poetry Brothel of Barcelona and New York City's Bowery Poetry Club. She was a correspondent for the Philippine Daily Inquirer for six years. Her work combines the arts and the sciences to create stories, objects, and experiences that facilitate wonder and human connection. She has spoken about her work in various conferences, lectures, workshops, and museums.

필리핀

Because of my cross-disciplinary training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I have witnessed the similarities of the sciences and the arts. Science remains the foundation of my art practice, be it a scientific fact or a property of a certain material. However, it is art that I believe effectively brings out the poetry of science. Art preserves the richness of human experience.

I have primarily concentrated on perception through our senses, which are the tools of human experience. How we perceive the world is a big factor in determining how we interact with it. I look to my studies in neuroscience, cognition, and psychology to see how the brain finds patterns. "Wonder" is a theme that is common in my work.

My intention for my work is to challenge our traditional views of perception, and to ignite the curiosity and playfulness of the viewer. As such, many of my pieces are interactive and immersive, or collaborative and social, where the viewer becomes a part of the piece or the process.



Olfactory Memoir of Three Cities
2012, 종이 위에 미세캡슐화한 냄새.
20x25cm,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뉴욕, 2012

Olfactory Memoir of Three Cities
2012, Microencapsulated smells on paper,
20x25cm,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2012



The Hug Vest
2012, 감온변색 페브릭, 가변크기.
마인드 뮤지엄, 마닐라, 2012

The Hug Vest
2012, Thermochromic fabric, Dimensions variable,
The Mind Museum, Manila, 2012